

관광아카데미 문화해설자 양성

교육생 선별 100여명 대상
군산시, 문화해설 질 향상 기대



500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군산시가 관광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 가능자를 양성하기 위해 관광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관광광역화를 통한 500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군산시가 관광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 가능자를 양성하기 위해 관광아카데미를 실시한다.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열리는 14회차 관광아카데미는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와 역사문화탐방지도사의 문화관광해설 기법 등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자 등의 관광분야 서비스 근로자들에게 군산의 관광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전문교육업체인 (사)한국농협회사를 위탁교육자로 선정해 실시되며 문화관광해설사와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택시·버스 종사자 및 숙박·음식점 운영자 등으로 교육생을 선별해 최종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관광아카데미를 통해 군산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군산시의 관광분석, 관광트렌드 및 서비스 사례 등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이 갖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에 효과적인 해설이 이루어져 품격 높은 관광사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광아카데미를 통해 관광객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문화관광해설 가능자가 다수 양성된다면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김기영 후보 "익산 동부권 복합체육시설 마련할 것"

6·13 지방선거 전북도의원 익산제3선거구(취성·영동·광성·남산·삼기·여산·금마·왕궁·춘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가 "부송동 하나로와 동부권 복합체육시설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후보는 28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행정 투명성 제고와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익산 북부권과 서부권, 남부권 부송동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있지만 동부권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해 불균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해, 사고로 인한 농업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중합보험의 가입 확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며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인구와 소외 유출 방지, 시대진위 시 시간과 비용적약을 위해 하나로 도로는 조기 완공해야 한다"며 "영동·부송지역을 통과하는 산업도로가 제약을 뜻하고 차량불량과 도로 안전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심각해 우회도로인 마천로의 조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윽고 "익산은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무수석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중앙청지권과의 연계로 통해 예산·정보를 해 공유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주요간선도로 경관개선 진행

익산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도로 경관개선을 위해 대학생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벽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벽화사업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 구간과 경기장 주변 일대 주요도로변 총 13개소에 마련된다.

이 중 신동과 모현동, 황등면 일원은 노후된 담장에 벽화를 조성하기 위한 바탕칠 작업 등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시의 상징이미지 등을 적용한 벽화 조성으로 전국체전 대비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익산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주민불편 초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차·주박차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

단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D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변경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범규위반 자동차이다.

이윽고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불법류심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방치는 범죄행위이며 방치차량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6.13 지방선거 판세분석 - 군산시 광역의원 제3선거구

2017 대선 혼풍이냐? 현역 프리미엄이냐?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광역의원 제3선거구는 결과



조동웅 후보



최인정 후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부송동을 비롯해 삼학·신평·월명·중안동등을 포함한 제3선거구는 무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결정한 최인정(46) 후보와 대선 바

람을 지방선거로 이어 나가려고 하는 조동웅(50)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가 펼쳐진다.

일제감치 재선 출마를 결심하고 무소속으로 4월 17일 후보 등록을 마친 최 후보는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세몰이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난달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결정된 조동웅 예비후보는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6월 선거가

지 이어 나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향후 치러지는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각 정당들은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군산시 광역의원 3선거구의 결과는 무소속 현역의원의 수성이나 아니면 꾸준히 1위의 정당지지율을 등에 업은 새로운 정치신인의 등장이냐에 지역정가의 축약을 관두세우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독주체제를 갖춘 후보들이 없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당지지율 탄탄한 지역 기반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민주당 익산지역 후보군 "지방자치 변화 기회달라" 지지호소

"집권당 힘 활용해야 식품산업 메카 육성 역사문화 도시 조성"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지역 후보군들이 "낮은 질서를 바꾸고 지방자치를 변화시킬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광역의원 김대오·김정수·김기영·최영규 후보, 기초의원 후보들은 28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익산은 위기라며 '익산이 제도약하기 위해서는 낮은 질서를 깨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익산 내부의 변화는 물론이고 10년만에 되찾아온 집권당의 힘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낮은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또 "반대편을 일삼는 세력, 입당과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지역 후보군들이 "낮은 질서를 바꾸고 지방자치를 변화시킬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탈당을 반복하는 세력에게 익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하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익산을 변화시키겠다"면서 "익산을 식품산업의 메카로 키우고

역사문화관광도시가 되도록 만들고 지역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마음껏 일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민주당 후보가 지키겠다"고 피력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자매도시 중국 진강시 신혼여행단, 익산시 방문 '호응'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의 신혼여행단과 TV 방송국 관계자들이 28일 익산에서 신혼여행의 추억을 남겼다. 이번 방문은 중국 진강시 방송국에서 진강시의 실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북 내 주요관광지의 여행과정을 방송으로 제작하여 중국 현지 방송매체를 통해 전파를 홍보하고자 27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마련

됐다.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진강시 신혼여행단은 28일 익산시를 방문하여 보석박물관, 내비위성당, 왕궁리 유적지를 견학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다양한 보석을 관람할 수 있는 보석박물관 천주교의 성지인 내비위성당,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왕궁리 유적으로 이어지는 신혼여행 코스

는 진강시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진강시 신혼여행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방송촬영을 통해 중국 진강시 전역에 시의 명소가 홍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에는 제99회 전국체전에 진강시 대표단의 시 방문이 있을 예정이고 11월에는 양 시 시장배 축구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